BYD, 1Q26 수출 호조로 우려보다 양호한 매출 기록

Hana China Weekly | 2026.4.30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BYD(1211.HK): 1Q26 수출 호조로 매출 컨센서스 상회, 차량 대당 순이익은 고정비 부담으로 악화

-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502억위안(YoY -11.8%)으로 컨센서스 7% 상회. GAAP 기준 순이익은 41억위안(YoY -55.4%)로 컨센서스 부합. 자동차/이차전지 사업부문 매출 1,271억위안(YoY -12.8%), GPM 21.0%(YoY -0.9%p/QoQ +1.2%p) 로 지역/제품 Mix 개선 기인해 1Q25 이후 4개 분기 만에 20% 이상 대로 회복. 차량 대당 순이익은 5,247위안(YoY -40%/QoQ -22%)으로 1분기 전체 판매대수 급감에 다른 차량 대당 고정비용 부담 증가에 기인해 전년/전분기 대비 악화. 차량 대당 매출은 16.0만위안(YoY +20%/QoQ +18%) 기록.
- BYD 1분기 전체 판매대수는 70.4대(YoY -30.0%/QoQ -47.8%)로 지역별로 중국은 37.9만대(YoY -52%), 해외 판매는 32.1만대(YoY +56%)로 전체 판매대수의 약 46% 차지.
- 2026년 연간 해외 판매대수 150만대(YoY +44%) 목표로 제시했으며, 수출 모멘텀 강하게 유지되며 BYD 매출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 2분기 1)중국 판매 실적 개선, 2)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체 판매대수 개선이 동반된다면 2분기 실적부터는 뚜렷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다만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능력이 아직 램프업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내수 판매량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SH): 1Q26 엔비디아향 AI 랙 출하량 급증하며 매출/순이익 성장 가속화

-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2,510.8억위안(YoY +56.5%)으로 컨센서스 17.3% 하회. GAAP 기준 순이익은 105.9억위안(YoY +102.5%)로 컨센서스 0.7% 하회. 3개 분기 연속 순이익 100억위안 돌파. AI 서버 시장 확대 및 클라우드 사업자향 매출 호조가 실적 성장 견인.
- 2026년에는 1)상반기 GB300 NVL AI 랙 출하량 증가, 2)하반기 엔비디아의 차세대 Vera Rubin AI 랙 양산 확대와 3)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신규 ASIC 고객사향 공급이 클라우드 부문 성장을 견인할 전망. 이에 따라 전사 매출/순이익 성장률은 2025년 YoY +48%/+52%에서 2026년 YoY +68%/+77%로 가속화가 전망된다. 차세대 Vera Rubin 플랫폼에는 액체냉각/전력공급/고속전송 부품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해 제조 마진을 넘어 일부 부품/모듈 마진까지 확보가 가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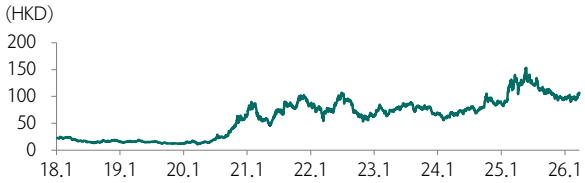
CATL(3750.HK): H주 신주 발행 통한 50억달러 자금 조달 공식화

- 4/28 CATL이 H주 신주 발행을 통한 약 50억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 계획을 공식화. 주당 628.2~651.8홍콩달러로 올해 H주 최대 규모 신주 발행이 될 전망. 특히 이번 발행에 144A 방식(미국 SEC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도 미국 내 적격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미국 기관 투자자의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 점이 주목되며, 이는 지난해 5월 홍콩 IPO(총 410억홍콩달러 조달) 이후 약 1년 만의 대규모 자본 확충. 4/28 CATL 주가는 6.9% 하락 마감.

BYD

상장 국가
중국 본토, 홍콩
섹터
자동차 및 트럭 제조
시가총액(조원)
75.7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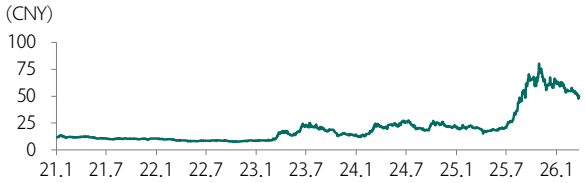
1Q26 실적 Review: 수출 호조로 매출액 컨센서스 상회, 차량 대당 순이익은 고정비 부담으로 악화

-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502억위안(YoY -11.8%)으로 컨센서스 7% 상회. GAAP 기준 순이익은 41억위안(YoY -55.4%)로 컨센서스 부합. 자동차/이차전지 사업부문 매출 1,271억위안(YoY -12.8%), GPM 21.0%(YoY -0.9%p/QoQ +1.2%p) 로 지역/제품 Mix 개선 기인해 1Q25 이후 4개 분기 만에 20% 이상 대로 회복. 소비세 감소로 인해 1Q26 세금 및 부가금은 YoY 13.9억위안 감소했고, 판매비/관리비/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비용률은 각각 3.9%/3.4%/7.6%로 영업비용은 YoY 30.6억위안 감소. 한편 금융비용은 21.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순비용이 40.1억위안 증가.
- 다만, 차량 대당 순이익은 5,247위안(YoY -40%/QoQ -22%)으로 1분기 전체 판매대수 급감에 다른 차량 대당 고정비용 부담 증가에 기인해 전년/전분기 대비 악화. 차량 대당 매출은 16.0만위안(YoY +20%/QoQ +18%) 기록.
- BYD 1분기 전체 판매대수는 70.4대(YoY -30.0%/QoQ -47.8%)로 지역별로 중국은 37.9만대(YoY -52%), 해외 판매는 32.1만대(YoY +56%)로 전체 판매대수의 약 46% 차지. 브랜드별로 BYD 브랜드 판매량은 50.8만대로 YoY -45.6%, 덴자(Denza)는 1.9만대로 YoY -43.3%, 팡청바오(Fangchengbao)는 5.6만대로 YoY +189.7%, 양왕(Yangwang)은 877대로 YoY +67.4% 증가.
- 2026년 연간 해외 판매대수 150만대(YoY +44%) 목표로 제시했으며, 수출 모멘텀 강하게 유지되며 BYD 매출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 2분기 1)중국 판매 실적 개선, 2)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체 판매대수 개선이 동반된다면 2분기 실적부터는 뚜렷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다만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능력이 아직 램프업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내수 판매량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

폭스콘산업인터넷

상장 국가
중국 본토
섹터
통신 및 네트워킹
시가총액(조원)
285.8

최근 주가 추이



1Q26 실적 Review: 엔비디아향 AI 랙 출하량 급증하며 매출/순이익 성장 가속화

-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2,510.8억위안(YoY +56.5%)으로 컨센서스 17.3% 하회. GAAP 기준 순이익은 105.9억위안(YoY +102.5%)로 컨센서스 0.7% 하회. 3개 분기 연속 순이익 100억위안 돌파. AI 서버 시장 확대 및 클라우드 사업자향 매출 호조가 실적 성장 견인.
- 2026년에는 1)상반기 GB300 NVL AI 랙 출하량 증가, 2)하반기 엔비디아의 차세대 Vera Rubin AI 랙 양산 확대와 3)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신규 ASIC 고객사향 공급이 클라우드 부문 성장을 견인할 전망. 이에 따라 전사 매출/순이익 성장률은 2025년 YoY +48%/+52%에서 2026년 YoY +68%/+77%로 가속화가 전망된다. 차세대 Vera Rubin 플랫폼에는 액체냉각/전력공급/고속전송 부품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해 제조 마진을 넘어 일부 부품/모듈 마진까지 확보가 가능할 전망
- AI 서버 공급 증가와 함께 2025년 폭스콘의 800G 이상 스위치 매출은 YoY 13배 증가했고, 2026년에는 엔비디아의 CPO(Co-Packaged Optics) 스위치의 핵심 공급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 2026년부터 CPO 스위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폭스콘은 3Q26부터 CPO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연간 출하량 1만대 이상을 기대.

전기차/이차전지

CATL(3750.HK): H주 신주 발행 통한 50억달러 자금 조달 공식화

- 4/28 CATL이 H주 신주 발행을 통한 약 50억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 계획을 공식화. 주당 628.2~651.8홍콩달러로 올해 H주 최대 규모 신주 발행이 될 전망. 특히 이번 발행에 144A 방식(미국 SEC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도 미국 내 적격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미국 기관 투자자의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 점이 주목되며, 이는 지난해 5월 홍콩 IPO(총 410억홍콩달러 조달) 이후 약 1년 만의 대규모 자본 확충. 4/28 CATL 주가는 6.9% 하락 마감.
- 4/27 CATL이 중국 ESS 업체 하이퍼스트롱과 나트륨 이온 배터리 3년간 60GWh 공급 전략 계약을 체결, 세계 최대 규모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수주를 확보. 이는 CATL이 2016년 이래 약 100억 위안을 투입한 나트륨 배터리 R&D의 양산 전환이 본격화 되었음을 의미. CATL 회장은 장기적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기존 시장의 30~40%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6세대 나트륨 배터리 개발도 진행 중. ESS 외에도 장안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나트륨 이온 양산 승용차가 올 중반 출시 예정으로, ESS+EV 양 축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 선점을 가속하는 전략에 주목.

양광전원(300274.SZ): 2026년 1분기 실적 둔화, 컨센서스 하회

- 2026년 1분기 매출액 155.6억위안(YoY -18.3%)으로 컨센서스 26.6% 하회. 순이익은 20.7억위안(YoY -44.1%)으로 컨센서스 31.0% 하회. 위안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 급증, 인버터 부문 매출 부진으로 순이익 급감. 구조적으로는 탄산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원가 압박, 인버터 시장 내 가격 경쟁 심화, 글로벌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 매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다만, 2분기 출하 가속화와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

니오(9866.HK): L80 대형 5인승 SUV 사전 판매 호조

- 4/29 온보 L80 대형 5인승 SUV의 사전 판매 개시 이후 홍콩 주가가 장 초반 7% 이상 급등. 사전 판매가 24.58만위안(배터리 포함), BaaS(배터리 렌탈) 시 15.98만 위안으로 2026년형 L90 대비 7.52% 낮게 책정. 온보 CEO는 "L80 주문이 지난해 같은 시기 L90 대비 소폭 양호하다"고 언급. 5인승 SUV L80은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음. 총 2,840L 수납 용적으로 중국 5인승 SUV 중 최대 수납을 표방하며, 공간 활용률 81.5%를 강조.
- 4/27 니오가 기존 차량 보유 고객 대상으로 자율주행 보조 표시등 애프터 마켓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998위안(약 146달러)부터 출시. 하나의 등에서 방향 지시등(노란색)과 자율주행 모드 활성화 시 스마트 드라이빙 표시등(파란색)을 겸용하는 듀얼 컬러 설계로, NOP+ 등 7가지 시나리오에서 차량의 자율주행 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기능.

BYD(1211.HK): 왕조 SUV 출시 하루만에 주문 3만대 돌파

- 4/24 베이징 모터쇼에서 왕조 라인업 최초의 D급 플래그십 SUV 'Da Tang(大唐)' EV의 사전판매를 개시(예약가 25만~32만위안), 24시간 만에 주문 3만대를 돌파하며 BYD 역대 사전판매 신기록을 달성. 4/27 BYD 주가는 4.7% 상승 마감.

고션하이테크(002074.SZ): 자회사 증자 계약 체결, 배터리 제조 기지 투자 예정

- 4/23 고션하이테크의 자회사 신즈허능(Xinzhi Heneng)이 증자 계약을 체결하고,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20GWh) 스마트 제조 기지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 5세대 LFP 전 시나리오 배터리의 5/16 발표를 앞두고,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해석.

체리자동차(9973.HK): 엔비디아와 협력 MOU로 Physical AI 개발

- 4/23 체리자동차가 엔비디아와 글로벌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 ADAS/스마트 콕핏 AI/로봇 등 3대 영역에서 Physical AI를 공동 개발. 월 GTC에서 지리가 엔비디아와 Physical AI 협력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중국 완성차 업체로, 자동차 기업의 Physical AI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는 모습.

플랫폼/테크

딥시크(비상장): V4 출시 직후 API 가격 대폭 인하

- 4/27 딥시크가 V4 출시 직후 API 가격을 대폭 인하, 토큰당 이용료를 기존의 1/10 수준으로 영구 인하해 최소 입력 비용을 100만 토큰당 약 0.14달러로 책정. V4-Pro에는 5/5까지 추가 75% 할인을 적용해 100만 토큰당 0.0036달러까지 낮추며, OpenAI GPT-5.5 대비 97% 저렴한 가격을 실현. 입출력을 합산한 대화 1건당 비용 기준으로 GPT-5.5의 약 1/32 수준. 이는 최근 Kimi K2.6· Zhipu GLM-5.1 등 경쟁 모델들이 플래그십 버전의 가격을 인상하는 추세와 정반대의 행보로, 기사용자 확보를 위한 공격적 가격 전략으로 해석.
- 4/24 딥시크가 15개월 만의 메이저 업데이트인 'DeepSeek-V4' 프리뷰 버전을 공식 출시·오픈소스 공개. V4-Pro(1.6조 파라미터, 활성 490억)와 V4-Flash(2,840억 파라미터, 활성 130억) 두 버전으로 구성되며, 100만 토큰 초장문 컨텍스트를 전 서비스 기본 사양으로 탑재. 장 주목되는 점은 화웨이 어센드 950·A3 슈퍼노드에서의 추론 검증을 기술 보고서에 처음으로 공식 기재하고, 하반기 어센드 950 슈퍼노드 본격 가동 후 V4-Pro 가격을 대폭 인하할 것이라고 명시한 점으로, 엔비디아 GPU-화웨이 NPU 듀얼 플랫폼 전략의 실체가 처음 확인. 이는 '탈CUDA' 전환의 구체적 이정표로 평가되며, 국산 AI 칩 수혜 기대감과 함께 IT 섹터 전반의 투심 개선을 견인.

Manus(비상장): 중국 발개위, Manus 인수 공식 차단

- 4/27 중국 발개위가 메타의 AI 스타트업 Manus 인수를 공식 차단하고 양측에 거래 철회를 요구. Manus는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으나 핵심 제품 개발은 중국 본토에서 이루어진 기업으로, 올 1월 상무부가 수출통제 및 기술수출 관련 규정 적합성 심사에 착수한 바 있음. 상하이 소재 로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선례적 사건이며, 유사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 추가 법적 조치가 예고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법인을 둔 중국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파급 효과를 시사. 미·중간 AI 기술 탈동조화가 M&A 영역까지 확대되는 흐름으로, 중국 AI 스타트업의 해외 자본 유치 및 엑시트 경로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

AI: 중국 내 AI 모델 가격 경쟁 심화

- 4/28 딥시크가 V4-Pro의 75% 한시적 할인을 당초 5/5에서 5/31로 연장, 캐시 입력 단가 기준 100만 토큰당 0.025위안으로 GPT-5.5 대비 약 1/32 수준의 초저가를 5월 말까지 유지. Zhipu.AI도 GLM Coding Plan 프로모션을 6/30까지 연장하며 맞대응. 딥시크 V4 출시 이후 OpenRouter 플랫폼에서 V4-Pro 일일 호출량이 하루 만에 4배 급증(136억 토큰)하는 등 사용자 유입이 가속되고 있으나, 연이은 할인 연장은 중국 AI 모델 간 가격 경쟁이 '에이전트 시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

바이트댄스(비상장): 차세대 3D 생성 모델 Seed3D 2.0 공식 출시

- 4/23 바이트댄스가 차세대 3D 생성 모델 'Seed3D 2.0'을 공식 출시하고 화산엔진(Volcano Engine) API 연동을 완료. 부품 단위 분할·관절 바인딩을 지원해 Isaac Sim 등 물리 시뮬레이션 엔진과 직접 연동 가능, 게임/구현형 AI/산업 시뮬레이션 등 생산급 활용으로의 전환을 표방. 3D 생성 AI가 콘텐츠 제작에서 로봇 훈련까지 확장되는 트렌드에 주목.

바이두(9888.HK): 오피스 에이전트 MAU 1억명 돌파

- 4/27 바이두가 AI Day 행사에서 오피스 에이전트 기능 업데이트 및 AI 에이전트 GenFlow 4.0의 MAU(월간활성사용자) 1억명 돌파를 발표하며 AI 상용화 모멘텀 부각. AI 에이전트 플랫폼의 실질적 사용자 규모 확대가 확인되면서 4/27 바이두 주가는 3.5% 상승 마감.

알리바바(9988.HK): AI 모델, 의료 영역까지 확장 가속화

- 4/28 알리바바 산하 다모아카데미(DAMO Academy)가 비조영 CT 스캔에서 조기 대장암을 탐지하는 AI 모델 'Coca'를 발표. 27,000명 이상의 스캔 데이터에서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놓친 5건의 대장암을 정확히 식별했으며, 민감도 86.6%·특이도 99.8%로 10명의 영상의학 전문의 대비 민감도가 20.4%p 높은 성능을 시현. AI의 의료 영역 상용화가 가속되는 모습.

소비

하이얼스마트홈(600690.SH): 북미 시장 매출 둔화 영향으로 1분기 실적 하락

- 2026년 1분기 매출액 736.9억위안(YoY -6.9%)으로 컨센서스 6.9% 하회. 순이익은 46.5억위안(YoY -16.0%)으로 컨센서스 8.8% 하회. 북미 시장에서 폭설 등 극단적 기상 이변으로 업계 수요가 약 10% 감소한 가운데 관세 비용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북미 사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 북미 시장(2024년 기준 매출액의 28%, 2025년 비중 미공개)을 제외하면 해외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발표.

소비: 노동절 연휴 소비 주간 개시, 소비 심리 회복 여부 판단 가능

- 4/27 중국 문화여유부가 2026년 전국 '5·1 문화여유 소비주간'을 공식 개시. 4월 말부터 노동절 연휴 종료까지 전국에서 약 1.4만 건의 문화·관광 소비 활동을 개최하고, 2.9억 위안 이상의 소비 쿠폰을 발급할 예정. 시노펙 (자가용 여행 할인), 차이나모바일(관광지 통신 혜택), 공상은행 및 농업은행(문여 소비 캠페인), 고덕지도(여행 특가) 등 산업 전반의 연계 프로모션도 동시 추진. 중국 내 상업 공연만 3만 건 이상이 예정되어 있어,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소비 촉진 의지를 재확인. 연휴 기간 실제 소비 데이터가 소비 심리 회복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5E	2026E	2025E	2026E			
텐센트(0700.HK)	(3.2)	14.4	19.4	10.5	10.0	8.5	12.6	29.3	(0.0)	2026-05-13
알리바바(BABA.US)	(1.0)	31.1	8.1	3.0	11.0	(29.9)	11.1	(54.5)	(1.5)	2026-05-15
징동(JD.US)	(0.9)	10.4	12.0	6.3	6.1	20.3	45.1	36.3	0.1	2026-05-13
트립닷컴(9961.HK)	0.3	13.5	9.8	13.6	13.0	(46.5)	15.6	(38.8)	(0.0)	2026-05-19
텐센트뮤직(TME.US)	(2.5)	10.6	11.5	9.6	9.4	(14.8)	10.6	19.3	(0.2)	2026-05-12
콰이쇼우(1024.HK)	(1.4)	10.3	17.1	4.3	6.8	(22.4)	17.9	(6.9)	0.0	2026-05-15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5.4	9.2	16.3	4.9	5.0	10.8	9.1	7.9	0.0	2026-04-27
샤오미(1810.HK)	(3.3)	21.3	12.0	10.5	16.9	(21.1)	34.4	3.8	(2.0)	2026-05-15
레노버(0992.HK)	1.9	11.0	26.5	16.1	8.4	21.7	5.1	11.6	0.0	2026-05-22
팝마트(9992.HK)	0.8	11.9	51.4	24.1	18.0	19.7	18.6	21.8	(0.1)	2026-08-19
미니소(MNSO.US)	(0.3)	11.0	24.5	18.7	15.4	126.7	18.3	162.4	(2.3)	2026-05-22
BYD(1211.HK)	4.6	20.4	16.2	16.5	13.3	30.8	24.9	41.6	(0.4)	2026-04-28
샤오펑(9868.HK)	0.6	283.4	0.0	30.4	24.9	적지	흑자	흑자	0.0	2026-05-21
CATL(300750.CH)	1.4	21.9	24.6	36.9	20.1	28.9	21.2	35.8	3.1	2026-07-30
양광전력(300274.CH)	2.7	17.2	27.9	21.8	18.1	27.7	18.3	23.6	(1.7)	2026-04-27
북방화창(002371.CH)	7.5	48.0	19.3	31.6	27.3	24.2	35.2	24.7	0.0	2026-04-28
SMIC(0981.HK)	12.6	60.7	4.4	18.9	16.6	41.4	33.1	41.0	0.0	2026-05-08
해광정보(688041.CH)	5.8	130.2	18.2	54.3	38.4	89.3	44.4	85.3	(2.5)	2026-08-05
통푸마이크로(002156.CH)	4.8	46.1	9.5	13.9	14.1	28.8	20.1	75.7	0.0	2026-04-29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2.4)	19.2	30.5	68.3	28.4	77.5	25.4	78.1	(0.2)	2026-04-28
중지쉬창(300308.CH)	(5.7)	39.0	54.0	113.8	35.5	126.4	42.1	122.6	10.8	2026-08-26
포니AI(PONY.US)	(7.7)	-	(19.6)	48.3	117.5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5-20
위라이드(WRD.US)	(2.5)	-	(24.1)	54.6	87.0	적지	적지	적지	1.0	2026-05-21
허사이테크(HSAI.US)	6.0	42.3	7.1	45.4	38.2	27.2	62.6	26.4	(0.7)	2026-05-26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2.5)	-	(26.6)	60.6	58.4	적지	적지	적지	0.4	2026-08-27
킹소프트(688111.CH)	(0.9)	50.7	16.2	18.7	19.3	25.3	19.2	23.4	0.0	2026-04-23
중신증권(6030.HK)	5.2	9.7	11.3	(18.7)	10.1	20.3	10.2	20.6	(0.4)	2026-04-24
평균	0.9	39.3	14.0	27.3	25.4	27.0	24.1	34.4	0.1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2026년 4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